



蜂療와 蜂針療法에 관한 임상실험레 및 연구논문選集<6>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硏究會 會長, 國際蜂療保健蜂針學術硏究會 副會長

5-8. 장애를 넘어서

이상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별난 요법을 받을 경우는 사람들은 즉흥적인 극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극적 효과는 사실 봉침요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침요법을 받아도 즉흥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봉침요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봉침요법에 관계되는 나쁜 평가는 대개 이러한 환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형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통증이 없어진 것으로 완전히 만족스러워 하고 완전하게 면역이 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류마치스가 재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봉침요법이란 전혀 허사다.” 라고 하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봉침요법을 계속한 결과 부기와 같은 반응이 있는 것에 겁을 먹고 봉침요법의 신봉자가 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침요법을 받고있는 도중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봉침요법을 시작할 당초에는 오랫동안 방치하여 둔 사례라든가 장애자가 되어버린 사례라든가 극단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경험부족으로 치료가 부진하였고 성공의



고상기회장

보장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암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절망하고 상처를 입고 생활에 위협을 받으며 봉침요법을 단념하기 바로 전까지 갔었지만 25년간의 엄격한 실험을 거친 현재 저는 엄청나게 많은 류마치스 완쾌자들과 지금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는 어떤 요법을 시도하여도 효과가 없었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던 절망적인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봉침요법으로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동료 의사들에게 봉침요법의 유효성을 끊임없이 호소하는 일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치료법이 모조리 실패로 끝난 환자라든가 어떤 치료법도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다는 환자야말로 봉침요법의 적용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어떠한 치료법을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환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봉침요법은 틀림없이 병의 원인을 제거하며 그 결과 병 자체도 치유하지만, 치료 전에 생긴 관절의 기형화나 변형을 낮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형이나 변형의 경우에도 봉침요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침요법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병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류마치스라도(단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하고) 봉침요법

으로 틀림없이 치유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적절한 시기에만 봉침요법을 받는다면 류마치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증상은 틀림없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진보는 이러한 저의 견해가 옳바르다는 것을 틀림없이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봉침요법의 효과는 국소적이면서도 전체적입니다.(면역이 좋은 증거임) 만약에 봉침요법의 효과가 피부의 한 국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맹인이 색깔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의 소견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라하대학교수인 랑겔박사가 봉침의 유효성분의 0.1%용액(이것은 박사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세균(류마치스의 병원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넣었더니 그 세균은 겨우 생존을 하고 있을 뿐 전혀 증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균의 생존에 적합한 용액에 옮겼더니 그 세균은 다시 성장과 증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상기 랑겔씨의 용액 중에서 사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체 내부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균은 인체 내에서는 봉침요법에 의해서 완전히 약화되어 저항력이 감퇴되고 이때에 체내의 산소의 공격을 받고 사멸하게 되고 류마치스의 병원체는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봉독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원균이 침입한다해도 갑자기 약체화해서 사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저는 언젠가는 봉침이야말로 류마치스의 특효약이라는 것이 널리 인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봉침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랑겔씨의 혈청(血清)과 같은 주사약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을 저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사

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봉침요법이라는 오래된 민간 요법으로 25년간 5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제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임한다면 어떤 의사라도 봉침요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굴욕과 적대심을 참으며 많은 희생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제가 오래 살아서 봉침요법이 널리 인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양봉업이 더욱 넓은 활동분야를 획득해서 봉침요법을 널리 알려주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6. 치매(癡呆)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봉침요법의 효능

노령인구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에 기인하면

- 본문은 '건강다이제스트' 및 韓國蜂針療法 硏究會 제18회 연수회에서 發表된 것임.
- 발표=한국봉침료법연구회 부회장 金鍾勳

서도 정작 고령 층에 치명적인 치매를 다스릴 의료분야의 기술진보가 거의 답보상태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치매가 얼마나 답답하고 주위사람이 괴로우면 세계보건기구(WHO)가 1994년 치매의 날을 제정했을까. 새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봉침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큰 효능이 있다.

원인, 증상, 효능을 알아본다. 우리가 흔히 “노망”이라고 부르는 치매는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거의 약이 없는 병이라 한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치매로 노후를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치매는 그 병에 걸리면 노인 당사자만의 불행이나 고통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효(孝)를 미덕으로 치는 우리 사회라 할지라도 한 가족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치매에 걸린 노인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가족

의 구성원이 따로 시간을 내 매달려야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거의 24시간 수발을 들어야 함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면 적지 않은 진료비 부담까지 뒤따르게 되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에 걸린 사람은 1997년 8.3%라고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치매노인의 발생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인식을 새로이 해 대처할 때다.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은 건강하던 뇌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치매증상을 유발한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조기 발견해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치매의 예방, 악화를 막으려면 자연식으로 적절한 영양섭취, 감염예방, 적당한 신체활동과 운동, 폭넓고 치밀한 인간관계의 유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대처 등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뇌 신경세포에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독서, 바둑, 장기 등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침치료를 하면 치매는 예방되고 치료가 잘된다.

6-1. 치매의 남녀차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4~5년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인종에게 공통된 사실이다. 따라서 치매도 여성에게 더 많아 남성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고 한다. 치매의 타입에도 남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치매는 대체로 뇌혈관성 치매는 보다 젊은 세대에 많고 알츠하이머 형(型)은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많다. 그런데 남성에게는 뇌혈관성 치매가 많고 여성은 알츠하이머 형 치매가 많다. 남녀는 뇌동맥경화가 나타나는 나이가 다르다는 점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뇌의 동맥경화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뇌의 동맥에서 뿐 아니라 심장의 관동맥(冠動脈)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남성 운동선수는 50대에 벌써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나 여성은 그렇게 되는 예가 드물다고 한다.

심장의 관동맥의 경화에 남녀 차가 있으니 여성은 남성보다 약 10년보다 늦은 것이다. 그 원인은 여성 호르몬에 있다.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장수한다. 그러나 여성도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는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동맥이 갑자기 경화되어 60세가 지나면 남성을 앞질러 버리기도 한다.

여성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여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뇌와 심장의 동맥경화를 막아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 조직의 동맥경화를 막아준다는 것은 종족보존(種族保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노릇이니가. 뇌의 동맥경화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일찍 발생한다는 것은 뇌의 혈관장에도 남성이 일찍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혈관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형 치매보다 일찍 나타난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형이 노화와 보다 깊은 관련성을 지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몸의 잘 쓰는 부분은 그만큼 발달하게 마련이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근육이요, 뇌다. 날마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근육이나 허구한 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의 뇌기능은 단련되어 간다. 인생의 성공이란 그런 하루하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어떻든 외부에서 자꾸자꾸 자극을 받아 그에 민첩하게 대응해 가는 형식으로 뇌를 구사해 가야 한다. 그 노릇의 뇌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증강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이 깨어리즘을 피우면 치매가 찾아 온다.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활동하는 노릇이 치매예방에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씨를 자상하게 배려할 것, 자기가 꺼리는 일은 남에게도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남에게도 베풀도록 하는 따위다. 배려하지 않은 “제멋대로” 기질이 치매로 내닫기 쉬운 타입이다.

부끄러움 모르는 암채족속이야 말로 치매 예비생이라고 할만하다. 자상한 마음씨가 없는 것이다.

6-2 치매증상 보이는 병

나이가 들어가면 치매증상을 보이는 병이 많아진다. 뇌에 관한 병도 아니건만 치매증상을 보이는 수가 많다. 예컨대 폐렴, 고열 등의 경우에도 치매 같은 증상을 보이기가 쉽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은 치매 비슷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적 능력 저하는 아니라는 점에서 치매는 아니다. 오히려 자발성 저하, 의욕의 감퇴, 무관심, 집중력 해이 등 치매를 둘러싼 증상이다. 부차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증상을 보이는 주요한 병들을 알아보면 뇌경색, 뇌졸중이 발작한 후에 치매가 나타나는 수가 적지않다. 뇌졸중 발작이 뇌경색으로 나타나든 뇌출혈로 나타나든 마찬가지다.

그 뇌경색 자체가 치매와 흡사하여 구별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치매는 아니요 경과를 보고 있으면 변동이 많고 증상도 다르며 게다가 잘 낫는다.

①우울증 : 우울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지 않게 되므로 주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지능검사 따위도 거부하는 수가 있어 치매로 오해받기 쉽다. 그렇지만 치매는 감정적 반응이 비교적 솔직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신체상의

하소연하는데 치매의 경우에는 하소연이 드물다. 또한 우울증은 “항 우울증”에 반응하는데 치매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만성 경막하 출혈 : 머리가 타박을 받는다는 지 해서 외상을 당한 결과. 나이든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머리에 사소한 타박상을 당해도 나타나고 한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외상을 당한 즉시가 아니라 몇 주일이나 2~3개월 후 때로는 몇 년 후에 나타나는 수도 있다.

두개골 안에 핏덩어리가 생겨서 자리잡기 때문에 안의 압력이 높아져 두통이나 구토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증상 자체가 치매증상이 많으니 치매와 헷갈리기 쉽다. 더구나 머리에 외상을 입은 시기와 동떨어져 증상이 나타나면 어느쪽이 진짜인지 진단하기가 난감해진다. 발병시기가 분명치 않은 점도 치매와 흡사하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뇌의 표면에 나온 핏덩어리를 제거하면 그 증상은 급속히 개선된다. 그러나 봉침은 두개골을 뚫지 않아도 핏덩어리가 봉독작용으로 소멸된다.

증상이 치매같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해 버린다면 나올 병도 낫지 못하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나이든 사람이 뇌 이외의 여러 가지 병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쉬운 까닭은 뇌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액의 순환량에 여유가 없는 것이 큰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②뇌종양 : 나이든 사람의 뇌종양의 경우에는 의식장애나 치매 증상이 많아져 특히 치매는 약 반수에게서 나타난다. 이 치매는 진짜 치매와 별로 차이가 없으나 성격적으로 이상 행동으로 내닫기 쉬운 경향이 있다. 뇌종양이 양성이고 생긴 부위가 괜찮으면 봉침 치료를 하면 치매증상은 개선되거나 소멸된다. 같은 뇌종양이라도 원발성인 것은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악성 종양이 뇌로 전이되었을 때는 치매증상이 드물다.

다음호에 계속